

# 전남 지자체 사활 건 인구 늘리기

화순 저출산 대응 전담팀·장성군 언어프로젝트 TF 꾸려

광양시 '인구영향검토제' 도입 인구 증가 따져 사업 추진

출산양육비 지원 등 일회성 지원책 한계 장기 정책 쟁점

“인구를 늘려라.” 전남 자치단체들이 사활을 내걸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양육비를 지원하는 ‘일회성’ 정책에서 더 나아가 전담팀을 꾸리고 인구가 늘어날만한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등 장기적 안목을 갖고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위기의식과 절박감이 감지된다.

◇전담팀을 기본=화순군은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협력과와 출산보육팀을 신설했다. 저출산 대응 테스크포스팀도 꾸렸다.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화순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2015년 기준 1.22명. 전남 22개 시·군 중 고흥·장흥 다음으로 낮다. 인구 수도 6월 말 현재 화순군 인구는 6만501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만5731명)보다 감소했다.

화순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가정 양립 등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8개 실·과와 10개 담당으로 이뤄진 언어프로젝트TF를 꾸렸다. 언어가 고향을 다시 찾아 돌아오듯, 살고 싶은 장성을 만들어 내는 인구증가 프로젝트라는 의미에서 불

어진 이름이다. 목포도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했고 완도는 인구 6만명 회복을 위한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장흥은 4만명을 지키기 위한 인구정책 전담팀을 만든 상태다.

◇‘일회성’은 안통해=장기적 전략=일회성 지원정책인 ‘출산양육비 지원’과 달리,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 늘리기 정책과 사뭇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순군의 경우 부서별로 ▲산업단지(12개 업체)·농공단지(169개 업체)·개발업지공장(138개)·화순전남대병원 등 기업체 임직원 주소이전 추진 ▲이전 기업체 지방세 세무조사 3년유예 ▲원마을을 주택단지 조성 및 입주자 전입 유도 등 인구늘리기 시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화순은 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광주와의 고교 공동지원제를 추진하는 한편,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의 지역 고교 진학시 장학금(300만원) 지급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여수도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장성은 ▲향우 및 도시민 귀농·귀촌 유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 ▲장성군민 되기 운동 ▲전입자 우대 조례 제정 ▲출산 장려 및 보육 사업 ▲주거환경 조성

■전남 22개시군 합계 출산율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전남도	1.50	1.55
목포	1.26	1.30
여수	1.38	1.55
순천	1.26	1.34
나주	1.49	1.64
광양	1.81	1.84
담양	1.69	1.60
곡성	1.35	1.44
구례	1.45	1.57
고흥	1.10	1.09
보성	1.74	1.70
화순	1.27	1.22
장흥	1.28	1.20
강진	1.92	1.76
해남	2.43	2.46
영암	2.00	2.11
무안	1.45	1.44
함평	1.95	1.63
영광	1.67	1.65
장성	1.83	2.10
완도	1.90	1.77
진도	1.66	1.70
신안	1.65	1.54

사업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양은 아예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구 유발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런바 ‘인구영향검토제’다. 시설구축, 프로그램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정책사업이 인구영향 검토대상사업에 포함되며 전 영역에 걸쳐 인구 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광양시가 처음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지난해 7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을 불러모은 장성군 황룡강 일대 ‘노란꽃잔치’ 축제장 전경. <장성군 제공>

## ‘황룡강 노란꽃 잔치’ 자원봉사·재능기부자 찾습니다

장성군 26일까지 모집

장성군이 지난해 황룡강 일대에서 연 ‘노란꽃잔치’ 축제는 72만명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인 ‘대박’ 축제로 명성을 떨쳤다.

기바람을 맞으며 노란꽃에 둘러싸인 사진들을 자신들의 SNS에 올리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았다.

장성군이 ‘대박’ 축제를 함께할 지역민들을 찾는다.

군은 ‘가고싶은 옐로우시티! 견고 싶은 황룡강!’을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황룡강 일대에서 열리는 ‘2017 장성 황룡강 노란꽃 잔치’ 자원봉사자·재능기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공연 재능기부자는 노래, 악기연주,

퍼포먼스, 연극 부문 등으로 나뉜다. 군은 이들에게 주무대와 소공연장 등 자신의 끼를 펼칠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 기준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는다.

장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1-390-7381.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국립심혈관센터 건립·노령산맥권 휴양벨트 조성

## 장성군 숙원사업 2건 ‘100대 국정운영 과제’ 포함

서명운동 등 10년 노력 결실...축령산 편백숲 사업 등 탄력

장성군이 반색했다.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지역 숙원 사업이 포함되면서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장성,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전남·북 6개 시·군 일대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을 지역 공약으로 명확히하고 지역공약 TF를 꾸려 이행력을 높여줬다고 밝혔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를 아우르는 6개 시·군은 장성을 비롯, 정읍, 순창, 고창,

부안, 담양 등이다.

군은 ‘국립심혈관센터’의 경우 유두석 군수가 민선 4기 때인 지난 2007년 전남대병원과 손잡고 유치에 공들여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받고 있다. 장성군은 당시 대학병원 부설 형태의 전국 11곳 권역심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하는 국립심혈관센터의 유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성군은 당시 군민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며 적극적 움직임을 펼쳤다. 장성군은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로 의

료·연구 인력 등 200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센터 장성 설립을 촉구하는 여론을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은 노령산맥(내장산~방장산~문수산~축령산) 산리자원을 휴양·치유벨트로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 프로젝트다.

장성군은 방장산과 축령산 일대 90여원을 투입하는 ‘건강증진센터 확장’ 및 치유숲길, 대피소, 주차장, 일광욕장, 풍욕장, 멀티복합센터 등을 조성하는 ‘축령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화순군 ‘도심속 국화향연’ 체험 프로그램 대폭 늘린다

축제추진위원회 열어

화순군이 오는 10월 열리는 ‘도심속 국화향연’ 축제를 대표적 지역 축제로 육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읍 남산 일대에서 펼쳐지는 ‘도심속 국화향연’ (10월 27~11월 12일)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축제 기본계획안 등을 심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축제 기간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을 형상화한 ‘고인돌 게이트’와 ‘핑매바위’ 등 다양한 국화 조형물을 선보여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또 고인돌 전통시장, 성안벽 화마와 등고 연계해 지난해보다 체험프로그램을 늘리고 볼거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야간 산책의 운치를 더할 ‘국화야(夜) 거리’를 화순 남문~화순성당 구간



지난해 열린 ‘도심속 국화향연’ 행사장 전경. <화순군 제공>

에 조성하고 길거리 공연을 펼쳐 축제장

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남도주막도 화순에서 생을 마감한 김삿갓 등 선비들의 풍류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꾸민다는

발상이다. 한편,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는 이날 김태룡 위원장을 비롯, 기관 사회단체, 학계와 문화예술인 등 25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임기 2년의 활동을 시작했다. /화순=나성종기자 nsi@

## “급 매”

###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 나주, ㄷ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